

해남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개장...“짜릿하게 즐기자”

356m 카트체험장·70m 사계절 썰매장 등 체험시설갖춰

49억원 들인 복합체험시설...남도 대표 체험 관광지 기대

해남 두륜산에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복합체험시설로, 아름다운 두륜산의 자연속 생태 힐링은 물론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356m의 카트체험장과 70m 길이 사계절 썰매장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의 관광 수요를 채울 새로운 장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륜산은 인근 천년고찰 대흥사와 두륜미로파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해남의 대표관광지로서, 이번 생태힐링파크의 개장으로 활동적인 체험위주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장을 기념해 1일 하루 동안 전 시설 무료 개방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두륜산 자연 속을 시원하게 질주하는 짜릿한 카트 주행 체험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썰매 체험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후 체험장은 유료로 운영된다. 사계절 썰매장 이용료는 성인·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이며, 카트 체험장 이용료는 1인승 2만원, 2인승

2만 5000원이다.
해남군민과 국가유공자, 당일 해남군 관내 상가 이용 후 1인당 2만원 이상의 매출영수증을 제출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의 19, 두륜산 케이블카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도의 대표 생태·체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남도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무료 개방 행사를 통해 두륜산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카트 체험.

무안의 맛, 전국에 알리다...황토골 요리 경연대회 성황

전국 20개팀 본선 뜨거운 경연

무안 농산물 창의적 요리 선보여

제17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8일 제28회 무안연꽃축제와 함께 열린 이번 대회는 ‘무안, 아시아의 웰빙을 담다’를 주제로, 무안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브런치 메뉴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에서 모인 20개 본선 팀은 현장에서 실력을 뽐내며, 맛과 창의성, 스토리텔링까지 더한 특별한 경연 무대를 선보였다. 대상은 ‘칠계비스프 해산물 불요방과 연자육 후후스’를 선보인 김리오·이한빈 팀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무안 황토 고구마 와플과 갈릭버터 잠봉비르’ 등 참신한 메뉴를 제안한 설민준·장명하 팀이 차지했다.
경연 외에도 관광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는 양파떡, 양파크림스프, 냉면국차 등 다양한 시식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또 특산물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17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20개 본선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연대회 모습.

무안산 농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무안군은 이번 대회 수상작의 외식업소 연계 및 브런치 메뉴 실용화를 추진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요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제와 연계한 미식 행사를 발판 삼아 지역 농업과 외식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산후 조리비 지원

첫째 아이까지 확대

지역상품권 80만원 지급

진도군이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둘째 아이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감면해 주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한 한 판데 출산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접합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진도군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를 출



김선주(왼쪽에서 두번째) 진도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홍보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산을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

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경찰 보이스포싱 막은 직원에 감사장

농협 직원 기지로 9000만원 예방

무안경찰은 지난 30일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를 찾아 최근 보이스포싱을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감사장 수여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로,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다급한 표정으로 농협 창구를 찾은 고객이 2억 9000여만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려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112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 고객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고객은 보이스포싱 범죄단체에 속아 송금을 시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수여한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포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포싱 범죄로부터 안전



한 무안군 만들기를 위해 공동체 치안 협력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고향사랑기부 감사 이벤트

7월 한달간...추첨 영암한우 증정

영암군이 7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감사 이벤트 ‘영암에 고향사랑기부했소? 한우왔소!’를 진행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로 마음을 전한 기부자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2가지 이벤트를 펼친다.
2023년이나 2024년에 기부하고, 올해 7월 29일까지 거듭 기부한 재기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20명을 선발 10만원 상당 영암한우를 추가 증정한다.
올해 첫 기부자에게는 환영의 의미로 1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 영암한우를 추가 증정한다.
30~31일 이들 동안에는 10만원 이상 기부자들에게 푸짐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답례품 증량 이벤트’도 진행한다. 영암매력한우 삼호명품판과 기찬랜드명품판, 영암축협 등에서 제공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해수청 영광 송이도 수중암초 등표 신설

계마항~송이도간 항로 여건 개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방해상 수중암초(새우여)에 등표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등표는 해상에서 위험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항행금지 구역 등을 표시하는 항로표지이다.
새우여등표는 국비 8억원을 투입해 직경 1.5m, 높이 14m 규모의 원형강관조 구조물로, 표지 북측에 기항수역을 표시하는 북방위표지 기능으로 야간에는 약 16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됐다.
송이도 북방 해역은 조류의 흐름이 빠르고 암초가 넓게 분포돼 있어 송이도항 입·출항 선박이나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항로표지 설치를 절실히 요청해 온 장소이다.
이번 등표 설치로 야간 및 기상악화 시에도 선박들이 암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락철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여객선 안전 운항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



영광 송이도 해상 수중암초에 설치된 등표.

은 “앞으로도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안전한 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1004몰’ 4주년 기념 44% 할인 축제

구매왕·리뷰왕 등 적립금 이벤트

신안군이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에서 오픈 4주년을 맞아 고객감사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4주년 기획전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며 최대 44~22%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별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숫자 ‘4’를 테마로 한 ‘4대 천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 ‘구매왕’, 가장 많은 리뷰를 작성한 ‘리뷰왕’, 매일 4일 연속

출석 체크하는 ‘출석왕’, 지인을 초대한 ‘추천왕’ 등 4개 부문에서 선정된 고객에게는 최대 4만 원의 적립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즉시 사용 가능한 4000원 적립금이 지급된다.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은 신안군의 대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2021년 7월 1일 오픈해 김, 천일염, 홍어, 유기농 쌀, 새우, 섬초, 섬바나나 등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신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410여 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 선포

해남군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해남군은 최근 군 청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게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선포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읍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남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

와 협력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9년 6월 1일까지 4년간이다. 군은 202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실행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향후 4년동안 유니세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 가능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쳐나간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